

# 취재 현장이 사라졌다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코로나-19 방역 관련  
본관 폐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한국기자협회

“현장에 답이 있다.” 2015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습기자 교육 당시 첫 수업에서 들었던 말이다. 짧지만 강렬했던 이 문장은 당시 썼던 내 취재노트 첫 페이지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 수습기자란 꼬리표를 떴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기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도 가끔 되뇌는 문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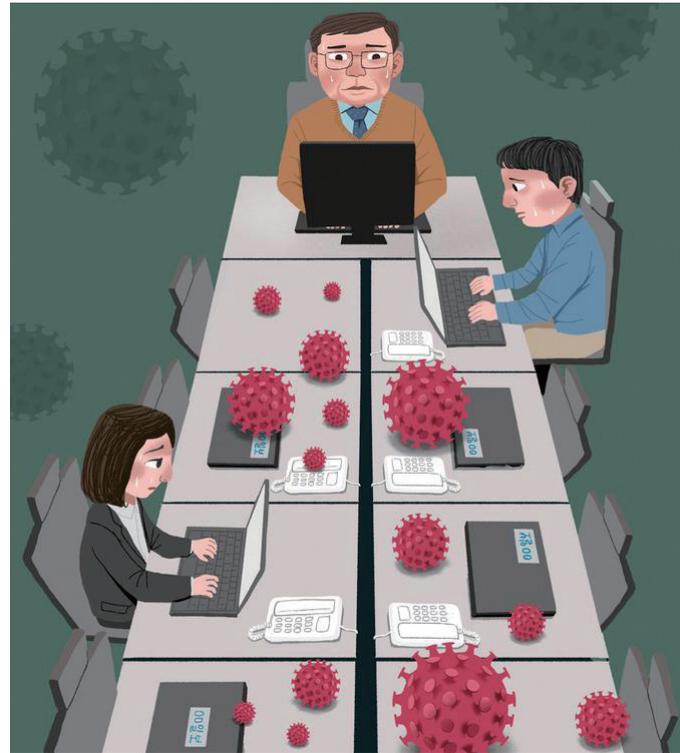
기자들에게 현장이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정치와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서 현장 취재 기회가 급감했다. 기자는 사실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을 전할 때 그 정보의 가치가 커진다. 직

접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전할 때는 그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다수 오보도 현장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진다. 언론사가 수습기자를 현장에 직접도록 보내는 것도 결국 습관을 위해서다. 가능한 취재 현장에서 있어야 올바른 사실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현장이 사라졌다. 정부는 중요 브리핑을 제외한 소통 창구를 닫았다. 기업도 크고 작은 행사부터 임원과의 자리 등을 대폭 축소했다. 암행어사처럼 존재를 숨기고 이뤄지던 사회 취재 역시 감염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이유로 대부분 어려워졌다.

정보기술(IT)의 힘을 빌려 비대면 현장을 확대했지만 취재에 있어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다. '대면'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정부 또는 기업의 행사나 발표는 '무색무취'에 불과했다.

과거 한 선배는 수습기자이던 내게 기자회견 현장에서 발표자의 워딩뿐만 아니라 행동과 표정까지도 모두 받아 적도록 했다. 해당 현장의 분위기가 파악만 제대로 해도 취재로는 절반은 해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줌(Zoom)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취재로는 그 현장만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읽기 어려웠다. 모든 현장에



일러스트=김성규

는 어색함만이 맴돌았다. 발표자는 미리 쓰인 문서를 대본처럼 딱딱하게 읽어 내렸다. 행사 주최자는 물론 발표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행사 후 이뤄지는 질의응답 기회도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크게 축소됐다. 그간 경험한 상당수의 좋은 기사는 메인 행사가 아닌 질의응답이나 백브리핑 등에서 나온다. 일부 정부 부처와 기업은 아예 취재를 위한 이 후속 취재를 차단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간과 시간 제약을 이유로



일러스트=한국기자협회

사전에 질문자와 질문 내용이 정해졌다. 자유로운 취재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기자들은 차별화한 기사 대신 천편일률적인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모 후배는 농담처럼 해외 출장이 사라져 아쉽다고 툭툭거렸다. 주니어 기자 시절 해외 출장을 떠나 신선한 자극을 받고 온 기억이 있다.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자는 더 큰 꿈을 꾸게 된다. 기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재 현장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로 해

외 출장은 고사하고 국내 출장마저 사라지자 한 동료 기자는 온라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업무 공간인 기자실도 사라졌다. 기자실 역시 중요한 취재 현장이다. 기자실은 해당 기자실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나 기업, 단체 등 사람을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다. 모 선배는 기자실 분위기만 읽고서도 기사 하나를 똑딱 쓸 수 있다고 했다. 중요한 이슈가 터지면 기자실 분위기부터 평소와 사뭇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사를 떠나 기자실은 기자 간 ‘만남의 광장’이기도 하다. 함께 출입하는 다른 언론사 기자와 기자실 옆자리에 몇 번 앉다 보면 어느새 동료가 되곤 한다. 마음이 맞는 기자끼리는 ‘꾸미’를 만들어 분업 아닌 분업을 하기도 한다. 기자실에서 처음 인사를 주고받은 남녀 기자가 눈이 맞아 결혼에 골인한 케이스도 종종있다.



일러스트=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로 많은 기자실이 문을 걸어 잠갔다. 매일 출퇴근을 함께하던 이들을 보기 어려워졌다. 최근 수년간 벌어지고 있던 출입처 문화 역시 해체가 가속화했다. 새로 출입처를 배정받은 기자들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출입처에 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자실이 사라지자 기자들은 1년 넘게 재택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주변 기자들은 재택근무 초반 2~3개월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답했다. 평생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는 기자도 있었다. 하지만 쟁여뒀던 취재 아이템이 떨어지자 만족감은 곧 불안함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줄어든 현장 일정에 더해 유선으로만 이뤄져야 하는 취재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특히 육아를 병행하는 선배 기자들은 “차라리 출근을 하게 해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지난 한 해 언론은 “재택근무로도 생산성은 차이가 없다”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정

작 기자들은 재택근무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

기자는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직업이다. 기사가 취재원과의 만남에서 창조되고 또 다듬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재원과의 만남이 어려워졌다. 코로나19 공포가 극에 달했던 지난해 중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취재원들이 만남 자체를 꺼렸다.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마음을 열 취재원은 많지 않다. 이는 곧 취재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회사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기사를 원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기자들의 고민은 커졌고 이같은 압박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진 취



출입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출입구가 봉쇄돼 있다. 사진=뉴스시스

재 현장이 언론의 위기를 불러올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다행(?)스럽게 기자들도 코로나19 시대에 적응을 이미 마친 모습이다. 비대면 현장의 제약을 풀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소규모 취재 활동을 적극 실시 중이다. 기자단 차원에서 질의응답의 제한을 최소화하거나 백브리핑을 비대면으로라도 진행하도록 단체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여전히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페이스북이나 클럽하우스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취재와 같이 통로도 다양하게 넓히고 있다.

언론사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전환에 힘을 쓰는 중이다. 수년간 ‘디지털 온리(Digital Only)’를 외치면서도 정작 대(大)전환을 가져가지 못한 것이 언

론사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보수적인 언론사들이 온라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줬다. 언론사들은 단순히 신문기사와 방송 기사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넘어 온라인을 위한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나섰다. 현장의 제약은 오히려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만큼 언론사의 ‘디지털 드라이브’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하지만 ‘대면’ 현장에만 집착하는 기존 사고를 버린다면 충분히 ‘비대면’ 현장에서도 새로운 답을 찾을 수도 있어 보인다. 올해 입사하는 후배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모든’ 현장에는 답이 있다.”